의 미국의대합격연구소
미국의대합격연구소 · USA

2026 EDITION

# 미국대학입시 전략가이드

당신이 몰랐던 미국대학입시의 진실
**수억을 절약하는 바이블**

포장은 누구나 합니다.
깊이는 구조에서.

- 초4~중2, 골든타임을 놓치면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 AMC · USACO · USABO — 적은 노력으로 최고의 티켓을 얻는 법
- 기·포·영(기간·포지션·영향력) — 99%가 모르는 EC의 진짜 공식
- 용의 꼬리 vs 뱀의 머리 — 하이스쿨 선택의 숨겨진 전략

Updated 2026
Digital SAT · Test-Required 복귀 반영

JEREMY YOON
미국의대합격연구소

# 당신이 몰랐던 미국대학입시의 진실

수억을 절약하는 바이블 · 2026 Updated Edition


| | |
|---|---|
| 저자 | 제레미 윤 (Jeremy Yoon) |
| 발행 | 미국의대합격연구소 |
| 초판 발행 | 2026년 5월 |
| 연락처 | Tel. 213-214-9461 · gcyedu@gmail.com |
| 웹사이트 | 미국의대합격연구소 (linktr.ee/gcyedu) |



## COPYRIGHT

© 2026 미국의대합격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레미 윤 및 미국의대합격연구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DISCLAIMER

본 자료는 교육 및 입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대학 합격이나 입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통계·수치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공식 출처가 명시된 경우 해당 기관의 공개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입시 관련 판단과 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TABLE OF CONTENTS

# 목차


**01** 프롤로그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미국대학입시 이야기 ..... 06

**02** 진짜 컨설팅의 진실
수십만 불? 결국 '우량고객' 만들기일지도 ..... 08

**03** 영어 공부, 리딩이 먼저다
문해력이 받쳐줘야 모든 과목이 산다 ..... 11

**04** 미국 수학 공부법
수포자 출몰 막으려면 7~8학년이 핵심 ..... 14

**05** AMC · USACO · USABO: 최고의 무기
적은 노력으로 최고의 티켓을 얻는 법 ..... 18

**06** EC의 진실 — 기·포·영
기간 · 포지션 · 영향력의 공식 ..... 22

**07** 좋은 EC 활동의 예, 나쁜 EC 활동의 예
입학사정관이 5초 만에 가려내는 차이 ..... 25

**08** Summer Program & Competition 전략
영역별 경쟁력 있는 여름 활용법 ..... 28

**09** [특집] 운동 vs 음악
현실적인 EC 선택법 ..... 31

**10** 대학이 에세이에서 궁금해하는 5가지
입학사정관이 5초 만에 거르는 에세이 ..... 34


미국의대합격연구소

11 하이스쿨 선택, 뭣이 중헌디?
용의 꼬리 vs 뱀의 머리, 과거 대입 실적 ..... 38

12 아이비 가는 학습 골든타임
수억의 컨설팅과 맞먹는 학년별 로드맵 ..... 41

13 미국 입시의 성공 공식
제레미 원장의 쓴소리 7가지 ..... 45

14 제레미 원장 필살기
고등학생을 위한 리서치 퍼블리싱 완벽 가이드 ..... 48

15 에필로그
맺음말 —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 51

미국의대합격연구소

CHAPTER · 01

# 프롤로그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미국대학입시 이야기

미국대학입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차이가 벌어지는 장기전입니다. GPA 인플레이션으로 높은 성적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차별화가 어렵고, 학생의 학업 수준·관심 분야·목표 대학에 맞는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 10~11학년입니다. 그때는 이미 학생들 간의 준비 격차가 크게 벌어진 뒤일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 보면, "우리도 이 정도 투자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며 몇 억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결과'를 사줄까요?

하이스쿨이라 시간도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녀를 보며… 선뜻 컨설팅 계약을 못 해주는 형편이 마음 아프고… 고민에 고민을 하며 배우자와 다투고 아이와 다투고 결국엔… 부모로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한 자신의 면죄부를 찾게 됩니다.

결국엔 어떤 카드를 던져도 덥썩 물게 됩니다. 그건 단지 자녀의 입시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보단 작은 마음의 위안일 뿐입니다.

## 진짜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잘 들으십시오. 아이비나 프리메드(Pre-Med) 준비, **4학년·5학년·6학년·7학년·8학년 이 5년이 수십만 불을 아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선행, 어린 나이에 번아웃 어쩌고, 이 역시 합리화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공부의 기본을 쌓아주십시오. 진심입니다.

만약 이미 늦었다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CORE INSIGHT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리 수억 원의 컨설팅을 받고 유명 과외를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과 컨설팅 회사의 우량 고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기가 부족하고 장기적 전략 없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적이고 냉정한 미국대학입시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마케팅 문구, 학원의 단기 패키지, 주변 학부모님의 카더라 통신 —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안개 너머에 있는 실제 입시의 구조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어디에 몇 명 보냈다"는 식의 합격 자랑이 아니라, 어떤 학생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의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포장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 그것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미국의대합격연구소

CHAPTER · 02

# 진짜 컨설팅의 진실

수십만 불? 결국 '우량고객' 만들기일지도

##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중학교 시절

주변 대부분의 학생들을 살펴보면, 주니어 하이 때까지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니어 하이(미국 중학교)에서는 웬만한 학생들이 쉽게 'A'를 받기 때문입니다. 학원이나 튜터링 역시 많이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악기나 스포츠 정도만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9학년, 10학년 때를 지나서 11학년쯤 되어 자녀의 진로를 생각하고, 아이가 수학·과학 성적이 좋으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프리메드(Pre-Med)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 컨설팅 세뇌의 시작

이때부터 컨설팅을 찾아서 단발성이고 이벤트성이 짙은, 누가 봐도 업체에서 만들어진 스펙을 자녀의 EC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확실한 세뇌가 시작됩니다.

> PARENT'S DELUSION
>
> "우리 아이도 좋은 학교, 프리메드(Pre-Med) 트랙 갈 수 있구나."
> "미국은 에세이 잘 쓰면 되고, 스펙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아마도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사실을 된다고 하는 달콤한 영업력에 속아 넘어가서 10만 불이 넘는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적당한 면죄부도 스스로 생기고, 불안감이 뒤늦은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고액을 서슴치 않고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B' 지우기의 늪

또한 성적 역시 성적표에 9학년 때부터 간혹 보이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두 개씩 늘어나는 'B' 지우기에 여념이 없게 됩니다. 당장 이번 주 있을 퀴즈 커버에 급급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과제 채우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고등학교에서는 시간당 과외비가 더 비싸고, 여러 과목을 커버해야 하며 한두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 진정성 없는 포트폴리오의 한계

수억을 들이고도 컨설팅·학원의 우량고객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두 번째는 **진정성 문제**입니다. 컨설팅에서 잘하는 것이 EC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고 에세이를 써주는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앙꼬 없는 찐빵의 나열입니다. 누가 봐도 급조한 냄새가 나는 리스트입니다. 돈으로 주고받는 단체 수상도 많고, 학생은 서부에서 공부하지만 학기 중에 동부 활동을 했다고 써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학생의 교과목과 GPA와 전혀 동떨어지는 활동 내역들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직결되는 활동의 진정성 문제는 입시 결과에 직격탄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럴싸한 포장에만 급급합니다.

## 입학사정관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커먼앱, 입학지원서는 플러팅과 글짓기의 공간이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의 원서를 사정하는 입학사정관의 눈에는 임의로 만들어진 것과 학생이 열의를 갖고 해온 활동들을 단번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려면 **진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수십만 불을 아끼는 유일한 기회

왜 미국대학입시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때 제대로 기초를 쌓지 않으면 나중에 수백, 수천만 원씩 들여서도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과도한 선행 학습이나 번아웃 걱정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기에 철저히 준비해두면 고등학교 가서 컨설팅이나 사교육비로 몇 억을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말 수십만 불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CHAPTER · 03

# 영어 공부, 리딩이 먼저다

문해력이 받쳐줘야 모든 과목이 산다

## 과목별 점수가 안 나오는 진짜 이유

APUSH, AP Lang, SAT Reading and Writing, AP English Literature 같은 과목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진짜 이유는 과목별 지식 부족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문제를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들여 과목별 튜터를 붙이고 시간을 더 투자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대처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문해력'**입니다. 현재 SAT를 비롯한 모든 주요 시험은 추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IGITAL SAT · 2024+

SAT는 2024년부터 완전히 Digital SAT로 전환되었으며, 적응형(adaptive)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Section 1: Reading and Writing, Section 2: Math**의 두 섹션으로 구성되며, 각 섹션은 두 개의 모듈로 나뉘어 첫 번째 모듈 성적에 따라 두 번째 모듈의 난이도가 조정됩니다. 시험 시간도 약 **2시간 14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원 시험인 LSAT, 변호사 시험, 그리고 Pre-Med 학생들이 응시하는 메디컬스쿨(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시험 MCAT의 CARS 영역까지도 결국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추론 능력이 핵심입니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부족하면 과목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두세 배 걸릴 뿐 아니라, 시험과 과제에서도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문해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추론과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SAT, ACT와 같은 표준화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의 Jeanne Chall 교수는 저서 『Learning to Read: The Great Debate』(1967)에서 체계적인

읽기 교육과 도전적 문헌 활용이 학업 성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Catherine Snow 교수의 보고서 『Reading for Understanding』(2002, RAND Corporation)에서도 논픽션 리딩과 문해력 강화가 대학 진학 후의 학업 성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

그렇다면 이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4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기간**이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이 시기에 논픽션(non-fiction) 리딩을 꾸준히 하고 그 내용을 요약(summary)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소한 분야의 글을 매일 꾸준히 읽고 서머리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같은 책이라도 논픽션과 픽션이 명확히 구별되는데, 논픽션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과학 분야뿐 아니라 인문학 분야의 글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중용(中庸)』— 유교 사서(四書) 중 하나,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 저작으로 전해짐 — 이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글을 던져주었을 때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경제, 역사, 윤리, 종교, 철학,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픽션 글을 골고루 접해야 문해력이 탄탄해집니다.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분야의 논픽션 읽기가 권장되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력을 키워, 시험과 라이팅에서 보다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 중 『중용(中庸)』이나 노자의 『도덕경(道德經)』과 같은 고전 인문학 작품들은 논픽션 읽기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런 글을 읽고 특정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리딩이 먼저, 라이팅은 나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글을 읽고 나서 반드시 글로 요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리는 리딩 능력과 더불어 논리적 글쓰기의 초석이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라이팅 튜터에 돈을 쓰지만, 제발 어렸을 때부터 라이팅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라이팅의 디테일과 논리가 살아나려면 리딩이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실제로 상담하면서 만나본 많은 학생들은 글쓰기 구조를 배워 글자 수 맞추기에 급급했지만, 주제에 대한 이해와 배경지식 부족으로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는 것이 없으니 뻔한 내용밖에 쓸 수 없고, 설득력이나 깊이가 없는 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결론: 논픽션 리딩이 모든 것의 답

가장 중요한 것은 논픽션 리딩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논픽션 글을 접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자녀에게 키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두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과목별 튜터를 찾느라 고생하고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문해력을 제대로 키워두면 하이스쿨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모든 과목을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시간과 돈 모두를 엄청나게 아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CHAPTER · 04

# 미국 수학 공부법

수포자 출몰 막으려면 7~8학년이 핵심

미국 수학교과 과정에서 수준별 반편성은 기본입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수학 트랙이 초중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대충 지나치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수학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곤 합니다.

우선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학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뒤 실제로 권장하는, AMC와 병행해서 더 빨리 나아가는 타임라인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 미국 중고등학교 수학 과정

### 7학년: Pre-Algebra

사칙연산, 분수와 소수 연산, 기본적인 방정식 해결 등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며 본격적인 대수(Algebra)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개념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Algebra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8학년: Algebra 1

수학에서 본격적인 개념 확장과 난이도 증가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인수분해(Factoring), 일차 및 이차방정식(Quadratic Equation), 함수(Function)와 같은 핵심적인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Algebra 1부터 수학적 사고력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므로 여기서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급격히 어려워져 수학에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여름 방학: Geometry (Bridge 과정)

기하학의 기초적인 원리, 삼각형 및 원의 성질, 증명 방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논리적 사고와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Algebra와는 성격이 다소 달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개념과 논리를 탄탄히 해야 이후 수학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 9학년: Honors Algebra 2

Algebra 1에서 배운 개념을 더욱 확장하며 복잡한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고차 방정식 등 본격적인 고등 수학을 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 수학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복잡성이 증가해서 상당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 10학년: AP Precalculus

고등학교 수학의 마지막 단계인 미적분(Calculus) 진입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삼각함수, 극좌표, 벡터 등 고급 수학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Algebra 2에서 확립한 개념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기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정도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됩니다.

### 11학년: AP Calculus AB/BC

대학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미적분의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배우며 대학 수준의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AP Calculus 과정에서 높은 성과를 내면 대학 입학 시 수학적 능력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권장 타임라인 (AMC 병행)

AMC 같은 수학 경시대회를 병행하면서, **늦어도 9학년에는 AP Calculus를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시절에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Calculus를 활용할 수 있고, 수학을 빠르게 끝냄으로써 대학 입시를 위한 다른 중요한 활동과 공부에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COMMENDED MATH TIMELINE

**6학년:** Algebra 1 & AMC 8 준비 — Word Problem(문장제 문제)에 중점. SAT/ACT에서도 핵심 평가 요소이며,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7학년:** Geometry 및 Algebra 2 병행 & AMC 10 본격 준비

**8학년:** Precalculus 완료 & AMC 10 고득점 목표, AIME 진출

**9학년:** AP Calculus AB 또는 BC 완료, AMC/AIME 지속 참가 및 고득점 유지

**10학년 이후:** Multivariable Calculus, Linear Algebra, 대학 수준 수학과목 수강 및 리서치 프로젝트 참여

이렇게 하면 수학에 대한 깊이와 탄탄한 실력도 갖추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은 하이스쿨에서 대학 수준의 심화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한 미국 대학 입시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트랙에서 머무르지 말고, 권장 타임라인을 따라 수학을 빠르게 끝내고 AMC와 병행하여 경쟁력을 키우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전략적인 접근이 수백만 불의 사교육비를 아끼면서도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길입니다.

미국의대합격연구소

CHAPTER · 05

# AMC · USACO · USABO: 최고의 무기

적은 노력으로 최고의 티켓을 얻는 법

## 경시대회가 최강 무기인 이유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AMC, USACO, USABO 같은 경시대회들입니다. STEM이나 프리메드(Pre-Med)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대회들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참여하는 다양한 캠프나 대학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경시대회 성과가 학생의 학문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025-2026 시즌 중요 변경

USAMO/USAJMO 자격 지수(Qualification Index) 공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AMC 점수 + 10 × AIME 점수**였으나, 2025-2026 시즌부터 **AMC 점수 + 20 × AIME 점수**로 AIME 배점이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AIME에서의 성과가 USAMO/USAJMO 진출에 더욱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므로, AIME 대비에 한층 더 집중해야 합니다.

## AMC (American Mathematics Competitions)

AMC는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AMC 8, AMC 10, AMC 12로 나뉘며, 이후 AIME(미국 수학 초청시험) 및 USA(J)MO(미국 수학 올림피아드)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시대회입니다.

**AMC의 핵심 개념:**

- **대수(Algebra):** 방정식과 함수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능력
- **기하(Geometry):** 공간과 도형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
- **정수론(Number Theory):** 숫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능력
- **조합론(Combinatorics):**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

AMC 준비는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병행할 수 있으며, 높은 성과를 내면 대학 입시에서 수학 능력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USACO (USA Computing Olympiad)

USACO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단순히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AMC에서 습득한 대수, 정수론, 조합론과 같은 심화된 수학적 사고가 알고리즘 문제 풀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USACO의 핵심 개념:**

- **알고리즘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 개발
- **자료구조(Data Structures):**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접근 방법 학습
- **수학적 사고의 알고리즘 적용:** AMC에서 배운 수학적 사고방식을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

단순히 유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 작성하는 수준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깊이 있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USACO의 핵심이며, 이것이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등 STEM 분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이유입니다.

## USABO (USA Biology Olympiad)

USABO는 생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미국 생물학 올림피아드입니다. 생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심화된 과학적 사고력과 생물학적 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 탁월한 평가 도구입니다.

**USABO의 핵심 개념:**

-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세포의 구조, 기능 및 상호작용 이해
- **유전학(Genetics):** 유전자 발현 및 유전적 다양성 이해
- **진화와 생태(Evolution & Ecology):**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는 능력

USABO는 프리메드(Pre-Med)나 생명과학 분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시대회이며, 좋은 성적을 내면 대학 진학 시 생물학적 능력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접근이 핵심

이 세 가지 대회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AMC의 수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USACO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면 두 분야 모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물학적 사고력이 강한 학생이라면 USABO까지 병행하여 과학적 사고력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 각 대회별 효과적 준비 방법

### AMC 전문 준비법

- 초등부터 중등까지 연산 능력과 Algebra 기초 개념을 철저히 확립하고 AMC 8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 AMC의 기출문제를 주기적으로 풀며 각 유형의 접근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 Algebra, Geometry, Number Theory, Combinatorics의 심화 이론을 전문 교재와 강의로 깊이 있게 학습하고, 풀이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리뷰하기

### USACO 전문 준비법

- USACO는 Python으로 입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Silver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C++ 또는 Java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시간 제한이 빡빡한 문제에서는 실행 속도와 자료구조 활용 면에서 C++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C++ 또는 Java 중 하나를 정해 기초 문법, 자료구조, 알고리즘 기본부터 심화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AMC 수학에서 다룬 Number Theory, Combinatorics 개념을 알고리즘 문제에 활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과거 USACO 문제를 시간 제한을 두고 푸는 연습, 문제 해결 능력과 알고리즘 효율성 최적화 전략 개발
- 코드 최적화와 시간 관리 연습을 위해 정기적인 온라인 대회 참여 및 평가 받기

### USABO 전문 준비법

- 캠벨 생물학이나 대학 수준 생물학 교재로 세포생물학, 유전학, 진화와 생태 분야 심화 학습
- USABO 공식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풀며, 이론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 응용력 강화
- 최신 생물학 논문과 연구 동향을 주기적으로 읽으며, 생물학적 사고력과 응용력의 폭을 넓히기
- 생물학 관련 공식 캠프, 워크숍 및 대회에 참여하여 실전 경험을 쌓고 학습한 내용을 검증

초중학교 때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적은 노력으로도 대학 입시뿐 아니라 대학 이후까지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대합격연구소 실제 사례 — MATH TRACK

**미국의대합격연구소 학생 실제 기록**

G6 체계적 수학 시작 → G8 AIME 진출 → 12학년 아이비리그 합격

6학년에 시작한 구조적 수학 설계가 8학년 AIME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 기록이 아이비리그까지 이어졌습니다.

목표 로드맵 예시 — MATH TRACK 설계 구조

**설계 예시** · G6 Algebra 1 + AMC 8 준비 시작 → G7 AMC 8 Honor Roll(19+) → G8 AMC 10 본격 진입 + AIME 도전 → G9 AP Calculus 완료 + AMC 10/12 고득점 → G10~ 대학 수준 수학 + 리서치 연계

이 구조의 핵심: 6학년의 출발이 10학년 이후의 자유를 만듭니다. 경시+선행 병행 3년이 하이스쿨 4년을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경시 준비 상태 체크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지금이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타이밍입니다:

☐ 현재 학년 대비 수학 커리큘럼이 1년 이상 뒤처져 있다
☐ AMC 8/10에 응시한 적이 없거나 존재를 모른다
☐ 수학 학원에 다니지만 경시 준비는 따로 안 하고 있다
☐ 7학년인데 아직 Pre-Algebra를 하고 있다
☐ "우리 아이 수학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전국 기준 위치를 모른다

**→ 해당된다면: 213-214-9461 문자 (지역/학년/이름) 또는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신청 ($49 유료)**

CHAPTER · 06

# EC의 진실 — 기·포·영

기간(Duration) · 포지션(Position) · 영향력(Impact)

## 대부분의 EC가 헛짓인 이유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EC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C 활동은 단순히 학교 클럽이나 단기간의 이벤트성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바뀌는 학교 클럽 활동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코딩 앱 만들기(예: 봉사시간 체크 앱)는 대표적인 비효과적 EC의 예시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활동을 보고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들은 너무 흔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EC 활동이란 꾸준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기포영(기간, 포지션, 영향력)'**의 공식으로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C의 핵심

EC의 핵심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이 학생이 왜 이걸 했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은 활동 목록을 세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생의 사고와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동기(Why) → 사고 과정(How) → 결과(What)의 삼각형이 명확하지 않은 활동은 아무리 화려해도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 기(기간: Duration)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지속했는가? 단기간에 급조한 활동보다는 2년, 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지속한 활동이 훨씬 가치 있게 평가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학생의 꾸준한 열정과 성실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포(포지션: Position)

활동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회장이나 리더 같은 중요한 포지션을 맡아 본 경험은 리더십과 책임감을 어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회장이나 리더가 아니더라도,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책임을 다했는지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영향력: Impact)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향력입니다. 활동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커먼앱(Common App)에 EC와 수상 실적 기재법

미국 대학의 입학 원서인 커먼앱에는 EC 활동을 최대 10개, 수상 실적(Honor and Award)을 최대 5개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개 활동을 나열할 때 **개인적 중요도보다 객관적 임팩트를 우선**하여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리더십 + 큰 임팩트** — 예) '전국 청소년 AI 해커톤' 공동 창립 → 300명 참가 유도, 장학금 $15,000 조성. 순서 1번에 배치.
2. **직책은 없지만 폭발적 성과** — 예) '로컬 강 수질 모니터링 앱' 개발 → 3개 카운티가 정식 데이터로 채택. 리더십 타이틀이 없어도 2-3번에 올릴 가치.
3. **지속적 참여 + 점진적 성장** — 예) 4년간 동물보호소 봉사 → 초기 단순 청소에서 신입 자원봉사자 교육 담당으로 발전. 꾸준함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활동은 4-5번 배치.
4. **학술적 성취 + 외부 인정** — 예) 과학 연구 프로젝트로 지역 과학경진대회 1위, 논문 발표. 학업 능력을 직접 증명하는 활동은 중간 순위에 안정적 배치.
5. **타이틀 있으나 영향이 제한적** — 예) 학교 역사동아리 서기, 회의록 정리 위주. 7-10번 또는 제외 고려.
6. **개인적 열정 프로젝트** — 예)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구독자 5,000명 달성, 교육 콘텐츠 제작. 독창성과 자기주도성을 보여주지만 사회적 임팩트가 제한적인 경우.

정리

타이틀만 있고 결과가 미미한 활동은 낮은 순위, 타이틀이 없어도 결과가 강력하면 상위권. 최상은 **"직책 + 측정 가능한 임팩트"**의 조합. 순서는 **"임팩트 → 리더십 → 지속성 → 기타"** 순으로 생각하면 안전합니다.

CHAPTER · 07

# 좋은 EC 활동의 예, 나쁜 EC 활동의 예

입학사정관이 5초 만에 가려내는 차이

이번 장에서는 실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이 학생 흥미롭다"고 평가하는 EC와, 반대로 "이건 다른 학생들과 똑같다"고 한숨 쉬며 넘기는 EC를 구체적인 예시로 비교합니다. 차이는 활동 자체의 화려함이 아니라 **독창성·지속성·구체적 성과**에서 발생합니다.

## ✓ 좋은 EC 활동의 예

- **AMC에서 AIME 진출**을 통해 National 상위 5-7% 실력을 증명한 사례 — 수치로 즉시 검증되는 학문적 우수성.
- **USACO에서 Silver 이상 등급**을 수상한 사례 — 단순 코딩이 아닌 알고리즘 사고력의 객관적 증거.
- **USABO 세미파이널 진출** — 프리메드(Pre-Med)·생명과학 트랙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 지표 중 하나.
- **장기간의 해외 의료봉사 및 제3국 펀딩 활동**을 지속한 사례 — '단기 봉사 인증샷' 봉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깊이.
- **의료봉사와 연계된 생명의학 리서치 및 퍼블리싱** — 봉사 → 문제 발견 → 연구 → 출판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완성됨.
-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다수 star를 받은 사례** — 코드의 사회적 영향력을 외부 커뮤니티가 검증한 형태.
- **오레오 맛 연구로 과자 회사에서 실제 장학금 수상** — 어떤 분야든 진정성과 결과가 있으면 학문이 됩니다.
- **컵 쌓기(Sport Stacking)로 국제 대회 참가** — 흔하지 않은 분야에서 세계 무대까지 간 일관된 헌신.
- **게임에서 시작해 아시아권 게임 팀 감독으로 발전** — '취미가 직업이 되는' 단계까지 끌어올린 자기주도성.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① **외부 기관이나 시장이 객관적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존재하고, ② **시작점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곡선**이 드러나며, ③ **활동과 학생의 학문적·진로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입학사정관은 활동 이름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봅니다.

## ✗ 나쁜 EC 활동의 예

- **"CS 준비"라며 Python 한 가지 언어만 학습, 봉사시간 체크 앱 같은 흔한 앱을 반복 개발** — 매년 입학사정관 책상에 수천 개씩 올라오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 **매년 학교 클럽을 갈아타면서 단순 참가만 반복**한 사례 — 10개 활동 칸을 채웠을 뿐, 어디에도 깊이가 없습니다.
- **봉사활동 시간만 잔뜩 채우고 의미 있는 결과나 변화는 없는 사례** — '몇 시간 봉사했는가'는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 **단발성 이벤트 참여만 줄줄이 나열** — 해커톤 하루, 캠프 일주일, 강연회 참석… 합치면 EC가 아니라 영수증 모음입니다.
- **유명 캠프나 대회에 '단순 참가'만 한 사례** — 컨설팅 패키지로 끼워 넣어준 캠프가 대표적입니다. 입학사정관도 어떤 캠프가 'pay-to-attend'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통하는가

위의 나쁜 EC들은 학생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활동 자체가 학생의 정체성과 연결되지 않고, "원서에 쓸 칸을 채우기 위해" 한 행위로 읽힙니다. 입학사정관은 매년 수만 개의 원서를 보면서 이 패턴을 한눈에 식별합니다. 형식만 비슷한 활동 10개는 진정성 있는 활동 3개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 좋은 EC와 나쁜 EC를 가르는 4가지 기준

1. **"학생의 사고가 드러나는가?"** — 왜 이 활동을 시작했고, 어떤 문제의식과 사고 과정을 거쳐 결과를 만들었는가. **활동 자체가 아니라 활동 뒤의 사고가 본질**입니다.
2. **"결과(Impact)가 측정 가능한가?"** — 시상, 출판, 사용자 수, 모금액, 정책 변화 등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가 있는가.
3. **"시간이 새겨져 있는가?"** — 1년차의 모습과 3년차의 모습이 명확히 다른가. 성장이 보이는가.
4. **"이 학생만의 이야기인가?"** — 다른 1만 명 지원자 누구나 갖다 붙일 수 있는 활동인가, 아니면 이 학생이기에 가능했던 활동인가.

한 줄 요약

EC는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했고(Why) · 어떻게 사고했고(How) · 무엇을 만들었는가(What) — 이 세 가지가 모든 활동에서 답변 가능해야 합니다.

## 결론: EC는 진정성이 답이다

진짜 EC는 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니라, 자녀의 가치관과 열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이 만들어준 그럴싸한 활동 10개보다, 학생 본인이 4년간 꾸준히 만들어낸 활동 3개가 훨씬 강합니다. **포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 Common App Activity에 넣으면 역효과인 활동 5가지

Common App에는 **Activities 섹션**(최대 10개 활동 기재)과 **에세이 섹션**(Personal Statement + Supplemental Essays)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5가지는 Activities 섹션에 넣었을 때 입학사정관이 "또 이거야"라고 느끼는 유형입니다.

주의 — Common App Activities에 이런 활동은 역효과

**1. 돈 주고 만든 "passion project"** — 비영리단체 창업, 앱 개발, 자선행사 기획. Activities에 적어놓고, 카운슬러 추천서엔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에세이에서도 그 경험이 와닿지 않으면 — 그 학생의 진정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입학사정관은 이 교차 검증을 놓치지 않습니다.

**2. 유료 연구 프로그램 경험** — $2,000~$5,000짜리 여름 연구 프로그램. 입학사정관은 어떤 프로그램이 "돈 주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Activities 10칸 중 하나를 이걸로 채우는 건 낭비입니다.

**3. 타이틀만 있는 클럽 리더십** — "Position/Leadership" 칸에 타이틀만 적고, 150자 설명에 구체적 변화를 못 쓰면 마이너스입니다.

**4. 일관성 없는 단기 봉사활동(Voluntourism)** — "참여 기간: 2주"라고 적는 순간 체크리스트 채우기로 읽힙니다.

**5. SNS 트렌드를 따라한 활동** — 입학사정관은 그 해 유행하는 패턴을 정확히 인지합니다.

Common App Activities 10칸 중 **4~6개만 채워도 됩니다**. 10개를 다 채우려고 얕은 활동을 넣는 것보다, 적은 수에서 위의 4가지 기준(Engagement, Initiative, Consistency, Measurable Impact)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 부모님들이 모르는 진실: 알바도 강력한 EC다

많은 한인 가정에서 알바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전·현직 입학사정관들이 공개적으로 반복하는 말: **"알바, 가족 돌봄, 기존 조직에서의 지속적 활동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다."**

매주 토요일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GPA 4.0을 유지하는 학생과, 부모가 다 해주는 환경에서 타이틀만 쌓은 학생. 입학사정관이 누구에게서 더 강한 인상을 받겠습니까? 동생을 돌보거나, 부모의 가게를 도우거나,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진정성 있는 Activities**입니다.

목표 로드맵 예시 — EC REBUILD 설계 구조

**설계 예시 (10학년 늦은 시작의 경우)**
10학년: 현재 EC 포트폴리오 전면 진단 → 흩어진 단기 활동 정리, 핵심 2개로 집중 재설계 → 11학년: 선택한 2개 영역에서 spike 형성 (리서치 + 커뮤니티 프로젝트) → 12학년: 재설계된 포트폴리오로 지원
핵심: 10개의 얕은 활동을 2개의 깊은 활동으로 교체하는 것이 결정적. 늦었어도 '구조'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EC 위험 신호 체크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EC 포트폴리오 진단이 필요합니다:

☐ 클럽에 4개 이상 이름만 올려놓고 있다
☐ "회장"이나 "창립자" 타이틀은 있지만 구체적 성과를 말할 수 없다
☐ 여름마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연결성이 없다
☐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활동이 EC 리스트의 절반 이상이다
☐ "우리 아이 EC가 강한지 약한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 해당된다면: 213-214-9461 문자 (지역/학년/이름) 또는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신청 ($49 유료)**

CHAPTER · 08

# Summer Program & Competition 전략

영역별 경쟁력 있는 여름 활용법

여름 프로그램과 대회는 자녀의 입시 포트폴리오에서 '진정성'과 '깊이'를 증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유명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 STEM 분야 여름 프로그램

### Research Science Institute (RSI)

Research Science Institute(RSI)는 Center for Excellence in Education(CEE)이 운영하고 MIT에서 진행되는 6주간의 최상위 STEM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MIT는 RSI를 우수한 수학·과학·공학 성취를 보인 rising high school seniors를 위한 MIT-hosted summer program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0명 내외가 지원해 약 80명 정도가 선발되는 매우 경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과학 이론 수업과 실제 연구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MIT 및 보스턴 지역 연구진과 연결되어 심화 연구 경험을 쌓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며, 합격 자체가 강력한 학문적 성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SI에 도전하려는 학생이라면 단기간에 만들어낸 활동보다, 오랜 기간 쌓아온 학문적 깊이와 연구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MC/AIME와 같은 수학 경시 성과, Science Fair 참여 및 수상, 꾸준한 Research 경험, 심화 과학·수학 과목에서의 우수한 성취,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독립 프로젝트 등이 지원 과정에서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I를 목표로 한다면 9학년 이후 갑자기 준비하기보다, 중학교 후반부터 수학·과학 경시대회와 리서치 경험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 SSTP (Summer Science Training Program)

플로리다 대학 주관, 7주 과정. 천체물리학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실제 연구 논문 작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학 분야 심화 연구 경험을 쌓기에 적합합니다.

### PROMYS / ROSS Mathematics Program

Boston University(PROMYS)와 Ohio State University(ROSS)에서 각각 운영하는 심화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정수론 중심의 집중 연구 과정으로, AMC/AIME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권장됩니다.

### Clark Scholar Program

Texas Tech University 주관, 7주간 진행. 자신이 선택한 연구 주제로 교수와 1:1 멘토링을 받으며 논문 작성까지 완성합니다. **비용 무료이며 오히려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과학 경시대회 및 리서치 대회

### Regeneron Science Talent Search (STS)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등학생 과학 연구 대회입니다. 매년 약 1,900명이 지원하고 300명이 Scholar로 선정, 40명이 Finalist로 선발됩니다. 총 상금 $1.8M 이상. 독창적 연구 프로젝트가 필수이며, **늦어도 11학년 여름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 Regeneron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ISEF)

지역 과학 페어(OCSEF, CSEF 등)에서 우승하면 진출할 수 있는 국제 대회입니다. 전 세계 약 1,800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합니다.

> 지역 과학 페어 경로
>
> **OCSEF**(Orange County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 **CSEF**(California Science & Engineering Fair) → **ISEF**. 매년 11월경 SRC 사전 승인 마감, 이듬해 2~4월에 지역/주 대회가 진행됩니다. 일찍 리서치 주제를 정하고 멘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문·예술 분야 대회

### Scholastic Art & Writing Awards

미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예술·작문 대회입니다. Gold Key, Silver Key, Honorable Mention 등의 수상이 있으며, Gold Key 이상은 전국 심사로 진출합니다. 창작 글쓰기, 시, 에세이, 미술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 문학·예술 분야 학생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National History Day

역사 분야의 대표적 대회로, 논문, 다큐멘터리, 전시,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 가능합니다. 인문학 전공 지원자에게 강력한 EC가 됩니다.

## 여름 프로그램 선택 전략 — 학년별 권장 타임라인

### 7-8학년
EXPLORATION

탐색 단계. 관심 분야를 정하고 기초 역량을 쌓는 시기입니다. 지역 대학의 단기 캠프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되, **관심 분야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시작**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9학년
LAUNCH

본격 참가 시작. AMC/USACO/USABO 등 경시대회 첫 성과를 만들고, 관심 분야의 경쟁력 있는 여름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이 시기에 **리서치 멘토를 확보**하기 시작하면 10~11학년에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0학년
DEPTH

심화 연구. RSI, SSTP, PROMYS 같은 최상위 프로그램에 도전하거나, 대학 교수와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과학 페어 출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 11학년
FINISH

마무리 단계. Regeneron STS 지원을 위한 연구 완성, 논문 작성 및 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대회 성과를 만들 시간이 없으므로**, 11학년 여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의 — 피해야 할 프로그램

비용만 비싸고 선발 기준이 없는 '누구나 참가 가능한' 캠프는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발 과정이 있는 프로그램(competitive admission)**이 입학사정관에게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또한, 단순 수료증만 받는 프로그램보다 구체적인 성과물(논문, 프로젝트, 발표)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 09

# [특집] 운동 vs 음악

현실적인 EC 선택법

## 미국 입시는 '적당히'를 가장 싫어한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EC를 정할 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운동이냐, 음악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둘 다 해야 하냐는 질문도 자주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입시는 '적당히'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활동을 조금씩만 하는 것은 대학에 전혀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대학은 학생이 EC를 통해 무엇을 성취했고, 얼마나 깊이 성장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운동 EC의 목적: 리더십과 성격 평가

운동 EC는 대학 입장에서 학생의 리더십, 책임감, 협력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선택할 때 팀 스포츠와 개인 스포츠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팀 스포츠(농구, 축구, 배구 등):** 학생의 협동심과 리더십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습니다. 주장을 맡거나 팀 내에서 주요 역할을 하면 리더십과 영향력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과가 팀 성적에 묻히기 쉬워서, 개인의 능력을 입증하려면 명확한 역할과 책임, 성과를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 스포츠(테니스, 수영, 육상 등):** 학생의 자기주도성, 끈기, 목표 성취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부진하면 그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관리와 좋은 성적 유지가 필수입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는 Division 1, 2, 3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치열한 **Division 1에서 활약하며 지역 또는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팀의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면 매우 강력한 EC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단순 참가 수준이라면 대학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습니다.

## 음악 EC의 목적: 창의성과 자기 표현력 평가

음악 EC는 학생의 창의력, 표현력, 단계적 목표 달성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음악 활동에서는 특히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목표를 이뤄낸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요 악기 선택 시의 장단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요 악기 선택의 장점**(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주요 악기들은 지역 오케스트라 참여, 주(State) 단위 올스테잇(All-State), 전국 단위 올내셔널(All-National), 국제 콩쿠르 등 명확한 단계별 성과 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꾸준한 성장과 목표 달성 능력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악기 선택의 단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인기 악기들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심하고, 특별한 성과 없이 단지 참여한 수준으로는 대학 입시에서 차별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리사이틀, 협연, 작곡 활동, 콩쿠르 수상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성과가 필요합니다.

## 모두에게 뛰어난 소질이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운동이나 음악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문제는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이나 성과가 없더라도, 구성원으로서 꾸준한 참여와 그 과정에서의 성장을 진정성 있게 에세이에 녹여낼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 절대적으로 유리한 활동은 없다

어떤 스포츠나 악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과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아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활동보다는 조금 덜 좋아하더라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 스포츠나 음악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스포츠나 음악이 모두 맞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스포츠와 음악만이 EC는 아닙니다. 미술, 연극, 사회공헌 활동, 과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자녀의 열정과 성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 분야가 아니라 선택한 활동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몰입하고 구체적인 성장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결론: EC 선택은 전략의 문제

결국 EC 선택은 전략의 문제입니다. 운동이냐 음악이냐라는 고민보다는, 선택한 활동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취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미국 대학 입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학 입시는 결국, 뚜렷하고 독특한 성과와 성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게임입니다.

CHAPTER · 10

# 대학이 에세이에서 궁금해하는 5가지

너는 누구고, 왜 이렇게 됐으며, 뭘 하고 싶니?

## 입학사정관이 5초 만에 거르는 에세이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려한 표현과 비유로 가득 찬 에세이를 좋은 에세이라고 오해하고, 그런 과장된 홍보를 하는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에세이 프롬프트(prompt)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에세이는 몇 번의 인터뷰나 간단한 브레인스토밍으로 급조된 이야기일 뿐, 실제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급조된 에세이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대학 입시 에세이는 한순간에 급하게 준비해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에세이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목표에 맞춰 자신의 성장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화려한 문장이나 놀라운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담백하게 진정성을 담아 서술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 자신이 지난 12년의 학창시절 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세이는 결국 이 학생이 대학에서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대학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지 멋진 표현이나 화려한 문장력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진정한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 꾸준히 관련 분야 독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책,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인문학 책, 동기부여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대학이 궁금해하는 5가지 핵심 질문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수많은 지원자들의 에세이를 보면서 다음의 핵심적인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에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것이 성공적인 에세이의 핵심입니다.

### 1. 너는 누구인가? (정체성 & 성격)

대학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 성격과 개인적인 특성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2. 어떻게 성장했니? (성찰 & 변화)

대학은 완벽함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패나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는지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 3.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적 호기심 & 창의성)

대학은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특정 주제나 문제에 몰두해서 깊게 연구하고, 독특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 4. 너는 어떤 행동을 해? (주도성 & 영향력)

아이디어나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주도성과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5. 너의 다음은 뭐야? (비전 & 열정)

대학은 미래에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단지 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현실적인 계획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 에세이 작성 TIP
>
> 에세이는 단순한 글짓기 대회가 아닙니다. 진정성을 담아 자녀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과 활동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해, 읽는 사람이 학생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Personal Statement vs Supplemental Essay —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에세이"라고 통칭하지만, 사실 대학 지원서의 에세이는 크게 두 종류이고,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 | Personal Statement<br>(공통 에세이) | Supplemental Essay<br>(학교별 추가 에세이) |
|---|---|---|
| **어디서** | Common App 공통 — 모든 학교에 같은 글 | 각 대학이 별도로 요구 — 학교마다 다른 글 |
| **글자 수** | 최대 650 words | 보통 150~500 words (학교마다 다름) |
| **목적** |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줌 | "이 학생이 왜 우리 학교인가"를 보여줌 |
| **핵심** | 학생의 정체성, 가치관, 성장 스토리 | 학교에 대한 구체적 이해 + fit(적합성) |
| **실수** | "나는 리더입니다" 식의 추상적 자기소개 | 학교 이름만 바꿔서 돌려쓰기 |

핵심 인사이트

전·현직 입학사정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Supplemental Essay가 Personal Statement보다 합격에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Personal Statement은 "이 학생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지만, Supplemental Essay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Why this school?" 에세이에서 학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교수, 연구실, 커뮤니티를 언급하지 못하면 — 그 학생은 "아무 데나 넣었구나"로 읽힙니다.

## Personal Statement에서 피해야 할 3가지

- **"봉사활동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패턴** — 입학사정관이 가장 많이 보는 클리셰. 2주 봉사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매년 수천 편 들어옵니다.
- **"나는 리더입니다" 선언형** — 리더십을 말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구체적 장면, 행동, 결과로.
-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공식** — 어려움 자체보다 **그 후에 뭘 했는가**가 핵심. 극복 스토리가 에세이의 끝이면 안 됩니다.

## Supplemental Essay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 **학교 웹사이트를 실제로 파세요** — 학과 페이지, 교수 연구 목록, 클럽 리스트, 캠퍼스 프로그램. "왜 이 학교인가?"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 **"이 학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 다른 학교 이름으로 바꿔도 성립하는 에세이는 0점입니다. 그 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을 찾으세요.
- **학교의 가치와 나의 경험을 연결하세요** — "이 학교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학교의 X 프로그램이 내가 Y에서 경험한 것과 연결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CHAPTER · 11

# 하이스쿨 선택, 뭣이 중헌디?

용의 꼬리 vs 뱀의 머리, 그리고 과거 대입 실적

## 학교 선택의 핵심 기준

미국 하이스쿨을 선택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학교의 이름과 명성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실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첫 번째 — 학교의 과거 대입 실적

미국의 하이스쿨에는 **Matriculation Status of Past Graduates**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졸업생들이 실제로 어떤 대학에 진학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자녀의 드림스쿨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실제로 진학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몇 명 보냈다는 표면적인 수치가 아니라, 목표로 하는 대학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진학했는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의 예상 학업 위치(성적, EC 활동 등)와 이 실적을 직접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목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실적을 검토할 때 중요한 부분은 **상위권 대학 진학자 중 상당수가 레거시**(가족 중 졸업생이 있는 경우)**나 운동 특기자들인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의 전체적인 대입 실적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고, 실제 일반 학생들이 진학한 현실적인 통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명문학교의 실적에서 하버드, 예일과 같은 탑스쿨 진학자 10명 중 7~8명이 레거시나 운동 특기자로 진학한 경우라면, 일반 학생으로서 이 학교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의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덜 유명한 학교에서 매년 상위권 대학 진학자가 단 한 명뿐이라 해도, 자녀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진학 가능성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학교의 전체적인 진학 실적뿐 아니라, 자녀의 예상 순위와 상황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두 번째 — 용의 꼬리 vs 뱀의 머리 전략

많은 학생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무조건 유명한 하이스쿨,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한 학교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게 되면, 선생님의 추천서나 학교 대표로 나설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경쟁적이지만 자녀가 **전교 상위 5% 이내로 올라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한다면 입학사정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위 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 30% 이내에 들어갈 각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교과 과정이 매우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모든 클럽 활동이나 리더십 포지션을 이미 우수한 학생들이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 진학 전에 미리 클럽의 특성과 참여 방법을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 번째 — 학생의 객관적 위치와 능력

마그넷 스쿨이나 유명한 사립학교에 입학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어려운 커리큘럼과 우수한 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수준 높은 AP 과목, 국제 수준의 경시대회, 독특하고 수준 높은 특별활동을 제공하지만, 학생 본인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만 늘고 성적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학업 능력과 관심사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학교를 선택하면, 학업 성적과 EC 활동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선택에서 핵심은 **'자녀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자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 결론: 명성보다는 현실적 분석이 답

학교 선택은 절대로 명성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학생 본인의 실제 실력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부담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CHAPTER · 12

# 아이비 가는 학습 골든타임

수억의 컨설팅과 맞먹는 학년별 로드맵

2026 UPDATE — Class of 2030

미국 명문대 합격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arvard는 최근 일부 입시 통계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Class of 2029 기준 합격률은 약 4.18%**(지원 47,893명, 합격 2,003명)였습니다. **MIT 4.58%**, **Columbia 4.23%**, **Yale 4.24%**. 이 수치는 5년 전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조기 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GPA 인플레이션**입니다. ACT 연구(2024)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평균 GPA는 2010년 3.17에서 2021년 3.36으로 상승한 반면, ACT 평균 점수는 같은 기간 21점에서 20점으로 하락했습니다. 'A' 학점을 받는 학생 비율이 과반을 돌파하면서 GPA만으로는 변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GPA 외의 차별화 요소 — 경시대회, 리서치, 깊이 있는 EC — 가 더욱 결정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학년별 골든타임 로드맵

### G4

4학년 · FOUNDATION

**수학:** 분수의 사칙연산을 확실히 완성해 수학적 사고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영어:** 논픽션 기사를 매일 짧게라도 읽고 요약(summary)하는 습관을 기르면 문해력이 튼튼해지고, 이후 모든 과목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워들리와이즈:** 5단계 복습 및 6단계 시작. 주 1회 학습과 주말 리뷰.

### G5

5학년 · START

**수학:** Pre-Algebra 시작, Word Problem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 강화. 미국 교재나 1031, 필즈, 최상위 수학 활용.

**영어:** 독서량을 늘리고 읽은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연습.

**워들리와이즈:** 6단계 복습 및 7단계 완성 목표. 매일 10~15분 학습 + 주말 복습.

## G6

6학년 · BUILD

**수학:** Algebra 1 본격 준비, AMC 8에서 최소 20문제 이상 목표. AMC 10까지 염두에 두고 기하·정수론·조합론 준비.

**영어:** 다양한 논픽션 텍스트로 글의 논리적 구조 파악 연습.

**워들리와이즈:** 7단계 복습 및 8단계 완성 목표.

## G7

7학년 · RESULTS

**수학:** Algebra 1 마무리, AMC 8 성과, AMC 10 최소 70점 목표. Algebra 2 기초 확립.

**영어:** SAT R&W 대비 기초 문법·어휘 정리, 논픽션 읽기·글쓰기 병행.

**과학·CS:** USABO, USACO 경시대회 탐색 및 관심 확보.

**워들리와이즈:** 8단계 복습 및 SAT 단어 기초 학습.

## G8

8학년 · FINAL CHECK

**수학:** Algebra 2 선행, AMC 10 최소 **120점 이상** 목표로 집중 준비.

**영어:** SAT 리딩 유형 + SAT 단어 집중 학습.

**과학·EC:** USABO/USACO 본격 시작, EC 활동을 '기·포·영' 중심으로 장기 계획.

**SAT 단어:** 완성 목표.

## G9

9학년 · SAT FIRST

**SAT 핵심 타임라인: G9, 늦어도 G10에는 유의미한 SAT 점수(1540 이상)를 확보해야 합니다.** 11학년부터는 AP·EC·리서치·에세이에 시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므로, SAT는 그 전에 끝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8학년 때 SAT 단어를 마치고 9학년 봄·여름에 실전 응시까지 끝내는 일정을 권장합니다.

**AP·EC:** 첫 AP 과목 진입, EC 활동의 '기·포·영' 기반 장기 트랙 시작.

## G10

10학년 · SAT FINISH

**SAT:** 9학년에 점수가 부족했다면 **10학년에 1540+ 확보 마감**. 이 시점을 넘기면 11학년의 핵심 시간이 SAT에 잠식되어 EC·리서치가 흔들립니다.

**AP·EC:** AP 과목 확대, 리서치 프로젝트 및 경시대회 성과 본격화.

**G11**
11학년 · EC PEAK

AP 수업과 시험 성과를 극대화하고, EC 활동과 수상 실적을 의미 있게 쌓아 입학사정관에게 어필할 준비. Regeneron STS 등 최상위 대회 출전을 위한 리서치 마무리 시기.

**G12**
12학년 · SUBMIT

대학 지원서와 에세이를 철저히 완성하고, 인터뷰 준비와 완성된 성과를 최종적으로 정리. 이 시기는 **더 이상 준비가 아닌 평가의 단계**입니다.

2026 UPDATE — TEST POLICY 변화

Harvard, Stanford, Dartmouth, Brown, Yale 등 다수의 명문대가 SAT/ACT 점수 제출을 다시 **필수로 전환**했습니다. Test-optional 정책이 후퇴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의 공개 자료 및 입시 분석에서는 SAT/ACT 제출자의 합격률이 미제출자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예: Yale 입시 관련 공개 분석(2024), Emory CDS/분석 자료 기반). SAT/ACT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참고 — Digital SAT

SAT는 2024년부터 완전 Digital SAT로 전환되었습니다. 적응형(adaptive) 시험으로, Section 1: Reading and Writing과 Section 2: Math의 두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총 시험 시간은 약 2시간 14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 결론: 골든타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골든타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대합격연구소 실제 사례 — READING → WRITING TRACK

**미국의대합격연구소 학생 실제 기록**

G5 인텐시브 리딩 시작 → Great Books, 철학적 사고·추론 강화 훈련 → G8 John Locke Essay Competition 숏리스트 선정

5학년에 시작한 체계적 리딩이 3년 만에 세계적 에세이 대회 숏리스트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해력은 시간이 만듭니다.

미국의대합격연구소 실제 사례 — SCIENCE RESEARCH TRACK

**미국의대합격연구소 학생 실제 기록**

G8 바이오 심화 수업 시작 → G9 연구 주제 선정 + 멘토 매칭 → 독립 연구 수행 → G11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페어(CSEF) 진출

8학년에 시작한 과학 심화가 11학년 주(州) 사이언스 페어 진출로 연결. 연구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 구조가 필요합니다.

목표 로드맵 예시 — FIT 기반 전략 설계

**설계 예시 (GPA 3.7, 만점이 아닌 상황)**

학교의 fit에 맞춘 에세이 설계: Supplemental Essay에서 학교 고유 프로그램·교수·커뮤니티를 구체적으로 연결 → Pre-Med에 유리한 학교 전략적 선택 (합격률보다 프로그램 fit 우선) → 안정적 Pre-Med 트랙 진입 + 리서치 기회 확보

만점 GPA가 아니어도 '왜 이 학교인가'를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Supplemental Essay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학년별 골든타임 놓치고 있는지 체크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지금이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타이밍입니다:

☐ 자녀가 6~8학년인데 아직 입시 로드맵이 없다
☐ 여름 계획이 "쉬기"이거나 아직 정해진 게 없다
☐ 경시대회(AMC/USACO/USABO) 존재를 지금 처음 알았다
☐ 주변에서 "아직 괜찮아"라고 하지만 불안하다
☐ 자녀의 수학/영어 레벨이 전국 기준 어디인지 모른다

**→ 해당된다면: 213-214-9461 문자 (지역/학년/이름) 또는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신청 ($49 유료)**

CHAPTER · 13

# 미국 입시의 성공 공식

제레미 원장의 쓴소리 7가지

## 현실을 직시하는 게 먼저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 쓴소리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소 강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1. 모든 활동엔 목적을 갖고 참여시키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참여만 하는 활동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활동을 하는 목적과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하고, 결과를 내지 못할 활동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 2. 주니어 미들 때 성적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미들에서 올 A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미들스쿨 성적은 고등학교 난이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이스쿨에서는 믿었던 과목조차도 흔들릴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하게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 3. 항상 12학년 겨울로부터 역산해서 생각하십시오

입시는 계획과 실행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12학년 겨울에 원서를 제출할 때 어떤 스펙과 활동을 완성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움직이면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 4. 양보다 질, 그리고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무조건 많은 활동을 채우기보다 몇 가지라도 의미 있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활동 목록이 아니라 **활동에서 보여준 성과와 임팩트**를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 5. EC로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 성적이 기본입니다

EC 활동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EC는 성적을 기반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적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EC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성적이라는 기본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 6. 입시 걱정을 이기는 법은 오늘 실행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실행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입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 7. 시간 없다, 힘들다, 어렵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노력은 실제로는 목표에 한참 부족한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의 노력을 **최소 두세 배 이상** 끌어올려야 합니다. 불평 대신 행동을 바꾸십시오.

CONCLUSION

이 7가지 쓴소리는 자녀의 입시 전략을 더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글을 책상 앞에 붙이고 **매일 반복해서 읽으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 14

# 제레미 원장 필살기

고등학생을 위한 리서치 퍼블리싱 완벽 가이드

미국의대합격연구소

## 리서치 퍼블리싱의 중요성

미국 대학 입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리서치 퍼블리싱은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래는 고등학생들이 리서치를 발표하기에 적합한 저널들을 중요도와 분야에 따라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6 UPDATE — Pre-Med 트랙 참고

AAMC(미국의과대학협회) 2025-26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메디컬스쿨 지원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합격자(matriculants) 평균 GPA는 **3.81**, 평균 MCAT는 **512.1**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AAMC 공식 보도 기준). Pre-Med 트랙을 목표로 한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리서치 퍼블리싱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추천 리서치 저널 리스트 (고등학생용)

| 저널 이름 | 중요도 | 비용 | 분야 | 리서치 형태 |
|---|---|---|---|---|
| Journal of Emerging Investigators | Most Prestigious | 무료 | STEM, 금융 시장 | 독창적·가설 기반 과학 연구 |
| STEM Fellowship Journal (SFJ) | Very Prestigious | $400 CAD | 모든 과학 분야 | 컨퍼런스 발표, 리뷰, 관점 기사, 원본 연구 |
| Journal of Student Research (JSR) | Very Prestigious | $50 | 모든 학문 분야 | 연구 논문 및 리뷰 |
| National High School Journal of Science | Great | $20 | 모든 과학 분야 | 독창적 연구, 문헌 리뷰 |
| Curieux Academic Journal | Great | $185~$215 | 공학·인문학·자연과학·미생물학 등 | 연구 논문, 리뷰 기사, 문학 리뷰 |
| | Great | $100 | | 연구 논문, 리뷰 |

| 저널 이름 | 중요도 | 비용 | 분야 | 리서치 형태 |
|---|---|---|---|---|
| Journal of Research High School | | | 과학 포함 모든 학문 분야 | |

## 추가적으로 추천할 만한 저널

| 저널 이름 | 중요도 | 비용 | 분야 | 리서치 형태 |
|---|---|---|---|---|
| Columbia Junior Science Journal (CJSJ) | Most Prestigious | 무료 | 사회과학 포함 모든 과학 분야 | 독창적 연구, 문헌 리뷰 |
|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 School Research | Most Prestigious | $200 | 행동·사회과학, 기술, 공학 | 독창적 연구, 문헌 리뷰 |
| The Young Researcher | Very Prestigious | 무료 | 모든 학문 분야 | 연구 논문, 문헌 리뷰 |
| Young Scientist Journal | Very Prestigious | 무료 | STEM 분야 | 연구 논문, 문헌 리뷰, 블로그·매거진 |
| Journal of High School Science | Great | 무료 | STEM | 연구 논문, 문헌 리뷰 |
| Ope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 Great | $299 | 비즈니스 및 경영 분야 | 연구 논문, 학술 논문, 단편 보고서 |

## 주의 — 퍼블리싱을 하면 안 되는 저널 리스트

(참고용 사이트: **Beall's List**)

이 사이트에 등재된 저널들은 논문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먼저 저널의 출판사를 찾아야 합니다 — 보통 저널 홈페이지 하단이나 "About" 섹션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출판사 이름이나 URL을 검색창에 입력해서 확인합니다. 만약 저널에 출판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Standalone Journals** 리스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전략적 준비가 성공의 열쇠

이 자료를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입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CHAPTER · 15

# 에필로그

맺음말 —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선행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경쟁의 연속이고, 미국 입시는 철저히 자본주의 경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와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자녀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순간을 미리 막자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 그 행복은 결국 부모가 길을 열어주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한 기본을 만들어 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컨설팅은 알맹이가 완전히 잘 채워졌을 때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책이 늘 고민과 카더라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학부모님들에게 명료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짜 현실을 말해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11학년 말에 찾아와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라고 묻는 분들입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역에서 손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해보자"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진작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학부모님들, 제발 현실을 보십시오.

자녀가 특별하다고요? 맞습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 입학사정관 눈에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특별한" 아이들이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진짜 특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들만 합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만 하는 기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학부모님들도 결국엔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모순 아닙니까? **경쟁은 싫어하면서 경쟁의 결과는 원하는 것**입니다.

## 돈으로 해결된다는 착각

컨설팅에 억 단위 돈을 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웃기는 것은, 정작 중요한 기초는 안 되어 있으면서 포장지만 예쁘게 싸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를 금박지로 싸봤자 썩은 사과**입니다.

자녀를 아이비에 보내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4학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들에게는 시간도 자원이고, 정보도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보도 늦게 얻고, 시작도 늦고, 돈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 아이들아, 너희도 현실을 봐라

"저는 공부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좋다, 그럼 그 "다른 것"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봐라. 축구? 손흥민만큼 잘해? 음악? 조성진만큼 연주할 수 있어? 아니면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현실은 이것입니다. 미국 최고 대학들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원합니다. 공부든, 스포츠든, 예술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진짜 뛰어나야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버드나 스탠포드 꿈은 접어야 합니다. **평범한 노력으로는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것

이 책에서 말한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도 못 하면서 명문대 꿈꾸는 것은 현실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본들만 제대로 해도 상위 1%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런 기본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아이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착각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합니다. "우리 아이는 다를 거야", "막판에 뒤집을 수 있을 거야", "운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 책을 읽고도 "에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3년 후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책을 읽고 "힘들어도 해보자"라고 결심하셨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국 명문대 진학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각오와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 지금 우리 아이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책을 읽으셨다면 한 가지는 느끼셨을 겁니다.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라는 것.

**Strategic Roadmap Diagnostic**으로 자녀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드립니다.

현재 위치 분석 + 12개월 학업 로드맵 설계 ($49 유료)

**☒이런 학생이라면, Strategic Roadmap Diagnostic을 추천합니다**

☐ 현재 **G5~G8** — 골든타임이지만 방향이 없는 학생

☐ **SAT/AMC** 준비를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

☐ **Pre-Med**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한 학생

☐ **EC/리서치** 방향이 잡히지 않은 학생

☐ 경쟁 **하이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 학원은 다니는데 **성과가 안 보이는** 학생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Strategic Roadmap Diagnostic**으로 현재 위치를 분석하고 12개월 학업 로드맵을 설계해드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늦은 뒤에 연락하십니다.**

##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현재 위치 분석 + 12개월 학업 로드맵 설계 **($49 유료)**

**방법 1 — 문자로 신청** (클릭하시면 문자로 연결 sms)

아래 내용을 **213-214-9461**로 문자 보내주세요.

**지역:** (예: Irvine, CA)
**학년:** (예: G7)
**이름:** (자녀 이름)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신청합니다 ($49)**

또 다른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 또 다른 방법으로
#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신청 — 방법 2

**방법 2 — 온라인 Diagnostic 신청**

아래 링크에서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49 유료)을 신청하세요.

**Strategic Roadmap Diagnostic 신청 ($49) →**

※ PDF에서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Diagnostic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미국의대합격연구소

**다른 곳과 다른 점**

대부분의 학원은 SAT 따로, EC 따로, 컨설팅 따로입니다.
저희는 **왜 6학년에 AMC를 해야 11학년에 리서치가 쉬워지는지**,
수학·영어·대회·리서치·입시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다는 걸 압니다.

---

"포장은 누구나 합니다. **깊이는 구조에서.**"

---

☒문자: 213-214-9461 ✉ gcyedu@gmail.com ☒미국의대합격연구소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이 전자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학부모에게 공유해주세요.
추천인을 통해 **수업 등록** 시, 소개해주신 분께 **$300 수강료 크레딧**,
소개받으신 분께도 **$300 할인**을 드립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입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통계 및 데이터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 2026 미국의대합격연구소. All rights reserved.